

# Yankee와 Frontiersman

張 旺 祿

English dogs after two or three generations in the new land became in habits and experience American; and so it was with men and with literature.

—Hector St. John de Crèvecoeur

Franklin is the real practical prototype of the American. Crèvecoeur is the emotional... We tend to forget the emotional heritage of Hector St. John de Crèvecoeur.

—D.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1780년대에 미국문학사상 최초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두 편의 古典이 終稿 또는 출판되었다. 그것은 Benjamin Franklin의 *Autobiography*와 St. John de Crèvecoeur의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인 바, 이들 두 작품은 각기 新大陸의 새 주인공이 된 미국인의 특성을 표현해 줌으로써 그 가치가 돋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반드시 유사한 미국인 像을 내보인 것이 아니라, 저자 자신들의 사람됨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꺾이나 대조적인 인물상을 그려냈다. 그러면서도 양자는 相克하는 異質的인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새 나라의 국민의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른바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을 실현하려는 각자의 노력에 있어서는 어김없는 同質性을 가졌음을 증명하였다.<sup>1)</sup>

그의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에서 Crèvecoeur는 “What then is this American, this new man?”에 대한 해답을 직설적으로 진술했지만, Franklin은 그러한 미국인의 原型을 그의 *Autobiography*를 통해서 劇的으로 제시해 주었다.

Franklin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교육도 못받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 순전히 자신의 재능과 실력에 의해 立身하여, 風雲을 타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practical한 天才와는 대조적으로 Crèvecoeur는 여행과 모험과 자연과 농경생활을 즐긴 낭만가였다. 한마디로 전자를 practical “Yankee”, 후자를 낭만적인 “Frontiersman” 또는 “Cultivato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은 New England에서 맹위를 떨친 淸敎主義(Puritanism)가 밀려오는 啓蒙思潮와 더불어 非淸敎徒 移民의 대폭 증가에 몰려 쇠퇴하고 변경개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서 광대한 신대륙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새 나라를 구축한, 미국의 신화를 창조한 미국특유의 새로운 인간상들이었다.

Franklin의 생애와 업적을 추적해 보면 18세기 미국의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할만큼 문학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과학, 종교 등 거의 모든 중요분야에서 그는 미국

\* 本稿는 필자가 집필중인 「美國文學史」(乙酉文化社 출판예정)의 Franklin章과 Crèvecoeur章을 연결지어 편집한 것이다.

1) Robert Spiller가 그의 명저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에서 “Diversity within unity was from the start the shaping characteristic of the new people, their land, and ultimately their literature.”라고 한 말은 여기에도 해당된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시대를 주름잡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형성한 것은 당시 대서양 건너 新大陸에 들이닥친 啓蒙思潮이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고찰이 그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그의 작품 이해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啓蒙思想은 Renaissance에서 강조된 인간의 탐구와 발견 정신의 結實이다. 16세기에 Copernicus가 주장한 地動說은 우주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탐구의 출발점이었다. 17, 18세기의 유럽은 Galileo의 망원경, Descartes의 분석기하학, Newton의 만유인력·미적분, William Harvey의 혈액순환의 발견등에 힘입어 과학적 合理主義가 팽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식민지 사람들은 신대륙의 개발과 조성에 일손이 바쁜데다가 강한 종교적 배경때문에 이러한 啓蒙思想이 대서양 건너 미국에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으나 그래도 18세기 후반까지엔 이 새로운 사상이 식민지 전체에 파급되었다. 그 결과 식민지 사람들의 세계관이 탈바꿈하기 시작했고 New England의 청교주의의 牙城이 무너지고 자유주의가 팽배하는 듯싶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사회에 혁명적인 변혁이 촉진되었다.

근본적으로 啓蒙思想은 神·人間·自然에 대한 태도에서 超自然主義(Supernaturalism)에서 合理主義(Rationalism)에로의 이동을 뜻한다. 自然에 대한 탐구와 분석인 과학의 진전은 聖書 특히 創世紀의 해석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러한 宗教의 正說에 대한 도전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세밀한 관찰자이며 그들의 발견을 기록하여 전달하고 싶어한 식민지의 지식인들 사이에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Cotton Mather, Jonathan Edwards와 William Byrd는 모두 청교주의 혹은 英國國教의 신앙을 堅持한채 과학적 탐구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예 종교적 正說에 등을 돌린 계몽주의자들은 17세기 사람들을 敬畏케한 자연과 인간사에 顯示된 神의 攝理說에는 흥미가 없었고 神의 섭리가 아니라 과학적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우주의 일상적이고 질서있는 양태를 중요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神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神에 봉사하는 최선의 길은 기도보다도 善行에 있다고 믿는 理神論者였던 만큼 그들은 정치면에서도 神權政治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사회제도를 회구하였다. 理性의 시대에 사는 그들이 英本國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와 착취를 환영할 까닭도 없었다. 혁명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계몽주의와 理神論<sup>2)</sup>과 理性의 신봉자였음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종교적 正說의 대표자를 Jonathan Edwards로 친다면

2) Deism(理神論)은 영국철학자 Lord Herbert of Chebury(1583~1648)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진다. Herbert는 순전히 합리적인 견지에서 종교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래서 Deism을 理神論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어떤 시대에나, 기독교도와 異教徒의 구별없이 누구든지 다음의 公理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a) 神이 존재한다는 것, (b) 神을 숭배해야한다는 것, (c) 경건한 태도와 美德의 중요성, (d) 사람은 자신의 죄를 참회해야 한다는 것, (e) 미래의 생활에 賞罰이 있다는 것 등이다. 神의 啓示로서의 성경의 숭배는 이같은 합리적인 견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啓示의 배제가 Deism의 특징인 것이다. 17세기 후반에 과학의 진보에 따라 合理主義가 급속히 확산되고 종교적 진리도 理性의 활용에 의하여 얻어진다는 Deism의 견해가 널리 인정되었다. Alexander Pope의 *Essay on Man*(1733)에서도 Deism을 해명하고 있다. Deism의 논쟁은 주로 영국의 문제였으나 미국에서는 Increase Mather, Cotton Mather 父子가 17세기말에 Deists를 공격 하였다. 종교에서 理性의 위치를 강조하는 Deism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논박할 필요성에 비추어 Jonathan Edwards가 *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1734)를 썼다. 植民地時代의 저명한 Deism의 저술에는 Benjamin Franklin의 *A Dissertation on Liberty and Necessity, Pleasure and Pain*(1725)이 있다. Franklin과 Herbert는 근본적으로 같은 의견이었다. 미국의 독립 당시 Deism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 가운데엔 George Washington, Thomas Jefferson, Alexander Hamilton 등이 있고 Thomas Paine의 *The Age of Reason*(1794)은 18세기말 미국의 理性派("cult of reason")의 존재를 표출시킨 것이다.

후자의 가장 광범위하게 뛰어난 인물은 역시 Franklin 이었다. 그는 Edwards와 거의 동시에 태어났으나 Edwards보다 한 세대나 더 오래 살았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18세기 미국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몸소 증명하였다. Edwards가 淸敎主義의 가장 순결한 종교적 정열의 상징이었듯이 Franklin은 미국에서 啓蒙思想과 理性時代의 상징이었다. Edwards가 천국에 가는 길을 설교하고 있는 동안 Franklin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 위해 부자가 되는 길을 역설하였고, Edwards가 죄인을 가차없이 지옥불(hellfire)에 던져넣는 무서운 神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신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을 때 Franklin은 그러한 神의 意志의 표현이라고 설교되어온 번개가 사실은 電流의 법칙에 의한 하나의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을 띄워 실험하여 그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렇듯 啓蒙思潮의 챔피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려서부터 그를 혼육시킨 淸교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헌신짝 버리듯이 전적으로 버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淸교주의의 장점만을 추출하여 이를 새 思潮에 흡수시키는 슬기를 보여주었다. 그 實例로서 그의 *Poor Richard Almanack*의 金言들 중에서 든다면 「개으름뱅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밭을 깊이 갈라라」(Plough deep while sluggards sleep.)라는 practical한 교훈과 더불어 「神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God helps them that help themselves.) 혹은 성서의 황금률을 재치있게 수정하여 「사랑을 받으려거든 사랑을 하고 사랑스러워라」(“If you would be loved, love and be lovable.”)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그의 *Autobiography*에 기록한 자기수양을 위해 엄격한 紀律을 실천한 것 역시 淸교도적이다. 이렇듯 그는 합리주의적 계몽사상에 淸교도적인 윤리를 포용시켰다. 더구나 그가 죽기 5주 전에 Yale 대학의 총장이며 동료과학자인 Ezra Stiles에 보낸 편지에서 종교를 배제하지 않는 그의 신념을 재천명하였다.

Here is my creed. I believe in one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hat he governs it by his providence. That he ought to be worshipped. That the most acceptable service we render to him is doing good to his other children. That the soul of man is immortal, and will be treated with justice in another life respecting its conduct in this. These I take to be the fundamental points in all sound religion, and I regard them as you do in whatever sect I meet with them.

Franklin은 1706년에 Boston에서 양초와 비누를 만드는 부친의 17자녀중, 후처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해서 Ben은 국민학교 2학년까지 밖에 못다녔고 10세 때부터 家業을 돕다가 12세 때 그의 異腹兄 James가 경영하는 인쇄소의 견습공으로 고용되었다. 그 동안 그는 틈나는대로 몇 권 안되는 부친의 책, 친구들한테서 빌린 책, 인쇄소 안에 있는 책들을 탐독하였고, 또 작문연습을 하기 위해 영국의 Joseph Addison의 신문 *The Spectator*의 글을 모방하여 연습하기도 했다. 그의 *Autobiography*에서 그는 그런 사실을 전하고 계속해서 회상한다. 17세 때 兄이 발간하는 신문 *New England Courant*紙에 兄 몰래 목사미망인 Silence Dogwood라는 가명으로 “Dogwood Papers”(1722)란 제목아래 14편의 에세이를 기고하여 발표했다. 그것들은 *The Spectator*의 에세이를 본받은 것이었다.

兄의 신문의 정치 기사가 당국의 비위에 거슬려 兄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Ben이 대리발행을 맡아 보았는데 형보다 나은 경영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그후 형제간의 불화로 Ben은 고용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Boston을 떠나 Philadelphia로 갔다.

그가 고향을 등진 또 하나의 숨은 이유는 청교주의가 지배하는 중심지 Boston 사회의 속박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후에 그가 Philadelphia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돌이켜 볼 때, Boston으로부터 그 중부식민지의 중심지로의 그의 이동은 미국문화의 성격과 중심의 변화와 이동과 일치하여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처음으로 Philadelphia의 거리에 나타났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Autobiography*는 매우 繪畵的으로 그리고 있다. 낯선 거리에 나타난 지치고 굶주린 가난한 소년은 그래도 자부심만은 저버리지 않고 있었다.

I was dirty from my journey; my pockets were stuffed out with shirts and stockings; I knew no soul nor where to look for lodging. I was fatigued with traveling, rowing, and want of rest; I was very hungry; and my whole stock of cash consisted of a Dutch dollar and about a shilling in copper. The latter I gave the people of the boat for my passage, who at first refuged it, on account of my rowing; but I insisted on their taking it, a man being sometimes more generous when he has but a little money than when he had plenty, perhaps through fear of being thought to have but little.

Ben은 그가 가진 푼돈으로 빵을 들고가는 소년으로부터 그 일부를 사서 먹고 나머지를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의협심도 보여준다. Philadelphia에는 Boston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Quaker교회가 있다. 우연히 그 안에 들어간 Ben의 거동을 묘사한 대목에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그의 超宗派의인 유연한 태도를 본다.

Thus refreshed, I walked again up the street, which by this time had many clean-dressed people in it, who were all walking the same way. I joined them, and thereby was led into the great meetinghouse of the Quakers near the market. I sat down among them, and, after looking round awhile and hearing nothing said, being very drowsy through labor and want of rest the preceding night, I fell fast asleep, and continued so till the meeting broke up, when one was kind enough to rouse me. This was, therefore, the first house I was in, or slept in, in Philadelphia.

맨손으로 이 도시에 온 그는 Samuel Keimer라는 사람의 인쇄소에 취직하여 겨우 延命하였다가, 다행히 그의 능력이 Keith知事の 눈을 끌어서, 그의 알선으로 Ben은 영국에 가서 인쇄기를 구입해 다시 독립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知事가 그에게 소개한 사람의 약속 불이행으로 기계구입을 못했고 귀국하는 대신 한동안 London에 머물기로 예정을 바꾸어 인쇄소에 취직해서 2년을 보냈다. 이 기간은 그에 있어서 영국사회와 그 이면을 익히고 인간수업을 한 중요한 기간이기도 했다.

1726년, Philadelphia로 돌아와 Keimer인쇄소에 복직한 그는 4년 후에 그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그 인쇄소를 인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The Pennsylvania Gazette* 신문을 직접 발간하였는데 이 신문은 1766년까지 속간되었다. 그는 또 서점도 경영했다. 그들의 州에 화폐가 부족하므로 지폐를 찍을 필요가 있다는 논설을 그의 신문에 내서 여론을 일으켜 그 제안이 州議會에 채택되었다. 그리고 Franklin이 지폐 인쇄의 청탁을 받아 그의 인쇄소는 많은 이익을 보았다. 그는 또 年鑑의 보급률이 큰 것에 착안하여 종래의 것들보다 더 유용하고 흥미있는 *Poor Richard's Almanack*을 발간하였다. 그것은 1737년에 시작

하여 1758년에 終刊할 때까지 해마다 베스트 셀러가 되어 그에게 큰 재산을 안겨주었다.

이 *Almanack*에는 캘린더, 日出沒 시각, 일기와 潮水의 干滿, 농경법, 장날<sup>3)</sup>, 日月蝕, 건 강유지법, 요리법 등 practical 한 지식외에도 마음의 지표가 되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 혹은 시인·작가들에서 인용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Franklin은 그것들을 당대의 민중들의 구미에 맞게 간결하고 修辭的인 문체로 재구성하였다. 예컨대 “A muffled cat was never a good wiser.”라는 속담이 Poor Richard의 입에서 나올 때는 “The cat in gloves catches no mice.”가 되었고, “Fresh fish and poor friends become soon ill sar’d[savored].”는 “Fresh fish and visitors stink in three days.”로 고쳐졌다. 여기에도 文章家로서의 Franklin의 기량이 표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것들은 모두가 Franklin의 창조는 아니고 영국이나 유럽제국에서 이용하기 편한 金言과 名句들을 많이 담았다. 그런 말들은 이 책속에 등장하는 Poor Richard의 입을 빌어 기록했는데 본명이 Richard Sounders인 그는 後代의 Washington Irving의 “Rip Van Winkle”의 주인공을 앞지른 恐妻家인 好人으로서 미국문학사상 최초의 虛構的인 인물이다.

첫해의 *Almanack*(1733)<sup>4)</sup>에 Poor Richard가 쓴 서문에 의하면 그의 집은 “excessive poor”한데도 그는 부지런히 일하여 돈을 벌려고 하기는 커녕 밤마다 별자리를 보고占이나 치며 소 일한다고 해서 “excessive proud”한 부인 Bridget가 구박하는데 못이겨 이 年鑑을 만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의 별占에 의하면 이 almanack 출판의 경쟁자인 Mr. Leeds는 곧 죽을 것이라고 익살을 부리고 나서 古今의 名言을 그럴싸하게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1757년엔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年鑑에 실린 Poor Richard의 maxims 중에서 근면과 절약을 권장한 것들만을 새로 등장한 Father Abraham이 모아서 맥락있게 편집한 것이 *The Way to Wealth*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고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Franklin이 과거 4반세기 동안 민중을 啓導해 온 그의 direct하고 practical한 교훈이 他國民에게도 호소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어떤 나라에 살건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God helps them that help themselves, as Poor Richard says... Sloth, like Rust, consumes faster than Labour wears, while the used Key is always bright, as Poor Richard says. But dost thou love Life, then do not spuander Time, for that’s the stuff Life is made of, as Poor Richard says...” 이처럼 재치있게 또 당시로서는 참신하게 표현된 현명한 말들의 寶庫를 마다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Father Abraham이 경매장 밖에서 군중에게 장광설을 퍼붓는 형식으로 된 이 책은 아이러니컬하게 매듭지어진다. 그가 아무리 節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아랑곳없이 사람들은 계속 낭비하는 것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Franklin은 이 책에서 그의 풍자의 재능도 과시했다.

3) 다음해 版부터 이 희극적인 Poor Richard는 진경한 철학자·도덕가로 둔갑한다. 그의 지혜로운 말들 중에 아직까지 널리 인용되는 “Early to bed and early to rise, makes a man healthy, wealthy and wise.”(1735), “An empty bag cannot stand upright.”(1740), “Little strokes fell great oaks.”(1750), “The brave and the wise can both pity and excuse when cowards and fools show no mercy.”(1754)등외에 민주주의, 자립정신, 공리주의, 저축장려, 근면절약, 시간절약, 말조심 등의 실용성있는 도덕들을 가르치고 권하는 말들이 수없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4) John Bach McMaster 著 *Benjamin Franklin as a Man of Letters*(1887)는 이 책을 “the most famous piece of literature the colonies produced”라고 평했다. Robert Spiller et al의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에서는 이것을 “a sort of civic catechism”이라고 불렀다.

정식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Franklin은 1728년에 소수의 知的인 젊은 직업인들과 회동하여 “Junto”라는 교양강좌 클럽을 만들어 독서와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교양을 쌓았다. 지식은 유용해야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그는 그 회원들로 공익단체를 조직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회람문고, 소방단, 경찰서, 병원, 학회(1743년에 그가 창립한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의 前身), 현대식 교육의 학교(1751년에 그가 세운 Philadelphia Academy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전신이다.)를 창설하는 등 Philadelphia의 사회 문화 발전 향상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

1748년에 Franklin은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명사로 각광을 받자 家業에서 은퇴하고 보다 큰 公益事業인 정치활동에 투신하였다. '51년에 Pennsylvania州 議會員으로 뽑힌 그는 '53년에 식민지 체신부 장관서리에 임명되었다. 동시에 그는 과학연구에서도 電氣 실험등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56년엔 영국 학사원(Royal Society of London)의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전기에 관한 그의 연구결과는 이탈리아語, 프랑스語, 독일語 등으로 번역되었고, Emmanuel Kant는 그를 가리켜 “a new Prometheus who stole fire from heaven”이라면서 칭송하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과학연구는 연을 띄워 번개와 전류의 법칙을 알아낸 것이었다. 그는 또 지진과 폭풍, 色과 熱의 흡수의 관계, 구리 지붕 등을 연구 발표했고, 발명품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피뢰침, 2중 초점 안경, 톱니바퀴를 셋으로 줄인 신행 시계, 열량 많고 연기 안나는 “Franklin stove,” 개량된 船體, 혼들의자 등도 있어 그는 소위 “Yankee ingenuity”의 대표자라고 해도 될 것이다.

1757년에 그는 Pennsylvania 議會의 대표로 영국에 파견되었고 나중에 실질적인 全植民地代表(Colonial Agent)가 되었다. 젊은 시절에 인쇄소 직공으로 2년간을 보낸 London에서 이번엔 당당한 외교관 자격으로 다시 5년간을 체류하면서 그는 협약해져 가는 영국과 식민지의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후일 영국과 對敵하여 독립을 쟁취하는데 필수적인 많은 지식을 비축하였다.

1762년에 귀국한 그는 식민지의 우체행정 시찰여행을 두루 했고 '64년에 다시 영국에 건너가서 印紙條例<sup>5)</sup>가 영국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지지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그 의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의회가 식민지 대표자의 참여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과세하는 것(“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은 不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1766년, 英國下院에 소환된 Franklin은 그곳에서 식민지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설명했으며 그 결과 印紙條例는 철회되었다. 그는 추가적으로 Georgia, New Jersey 및 Massachusetts 諸州의 대표자로 임명되었다. 1766년에 그는 독일을 방문했고, '67년과 '69년엔 프랑스를 여행했다. 이 기간에 그는 식민지의 불만의 이유를 설명하는 글들을 수없이 써서 영국신문에 익명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풍자의 재능이 탁월하여 많은 글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An Edict by the King of Prussia*(1773)는 Prussia의 Frederick大帝가 의회를 통하여 영국영토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 이것은 미국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부당한 요구를 풍자한 것이고, 또 *Rules by Which a Great Empire May Be Reduced to a Small One*(1773)은,

5) The Stamp Act: 1765년 영국이 歲入을 늘리기 위하여 미국식민지에서는 일체의 법률문서·공문서에 상업상의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무효라고 규정한 법령으로 식민지의 맹렬한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듬해에 폐지되었다.

Jonathan Swift의 *A Modest Proposal*을 흉내내어, 미국식민지에 대해서 영국이 터무니 없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추천함으로써 사실은 영국정책을 비꼬는 풍자적인 허풍(hoax)의 예이다.

1774년 Franklin은 그가 식민지 편을 들어 활동한다는 이유로 영국정부에서 不信任되어 체신장관서리직에서도 해임되었다. 그는 더이상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화해를 바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 해에 그는 London에서 중년의 담배상인이자 코르셋 제조업자인 Thomas Paine을 만나 그가 미국독립투쟁에 쓸모 있을 비범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게 권해서 Philadelphia로 이주케 했다.

1775년에 兩勢力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지자 Franklin은 이제는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Philadelphia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미 Lexington과 Concord에서 영국군과 식민지의 민병대(minutemen)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혁명전쟁은 드디어 막을 열었다. 그해에 그는 나이 이미 69세였으나 식민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餘力を 다 바쳤다. 여러 분야의 委員職을 맡았고 13州的 대표들이 모인 大陸會議(Continental Congress)에 Pennsylvania 대표로 참석했으며 Canada에 파견되기도 하고 체신부장관에 취임되었으며 Pennsylvania의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주관했고 大陸會議로부터 Thomas Jefferson, John Adams 등과 함께 독립선언문의 작성을 위촉받아 이를 起草하는 Jefferson을 도와 주었다. 그것은 그 해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되었는데 이에 서명한 식민지 대표 56명 중엔 그의 이름도 물론 끼어있다.

1776년에 Franklin은 프랑스로 가서 무역과 군사상의 美佛同盟을 맺도록 교섭하여 1778년 2월에 동맹체결에 성공했고 그해 가을 駐佛美國大使로 임명되었다. 그러자 그는 영국과 사이가 나쁜 프랑스로부터 독립전쟁 수행에 절대 필요한 차관을 얻어내어 군복과 탄약을 구입했다. 또 그는 미국을 위해 싸울 외국인장교를 모집했고 미국이 Sweden 및 Prussia와 조약을 맺게 했으며 그밖에도 식민지의 독립을 위해 막중한 외교적 역할을 해냈다. 史家들은 그의 그러한 활약없이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있다.

70代의 외교관이었던 그는 Paris 가까운 Passy의 社交界 귀부인들을 향응하기 위하여 은근한 유우머가 넘치는 가벼운 에세이들(bagatelles)을 써서 반포하기도 했다. "The Ephemera" (1778)<sup>6)</sup>, "The Whistle" (1779), "Morals of chess" (1779), "The Dialogue between Franklin and Gout" (1780)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렇듯 그에 있어서 문필생활은 본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과학연구와 더불어 필생토록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과학적 실험의 결과와 관찰을 부단히 과학자 친구들에게 편지로 써보내기도 하고 학보에 발표하기도 했다. 1779년 Paris에서 개최된 과학자 회의에서 北極光에 대한 그의 연구는 유명하고, 전기에 관한 수많은 학술용어들(battery, conductor, electrify, plus, minus, positive, negative, shock 기타)도 그가 만들어낸 것이다.

프랑스에서 Franklin은 대외교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과학자로서 자유와 인도주의의 옹호자로서, 또 Voltaire에 버금가는 문필가로서 널리 존경을 받았다. 1781년에 노령과 건강 쇠약을 이유로 귀국을 신청했으나 미국의회는 그에게 귀국에 앞서 미국이 영국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길을 트도록 위촉하였다. '83년에 마침내 이를 성취시켜 강화조약에 서명하

6) "The Ephemera" 에서 Franklin은 하루살이들이 떠드는 곳에서 눈을 돌려 독백하는 늙은 철학자 하루살이에 귀를 기울인다. 그 하루살이(Franklin)는 여러시간(해)에 걸친 그의 정치적·과학적 노력이 다가오는 죽음으로 인하여 부질없이 될 것을 예견하고 슬퍼한다. Franklin 자신의 신세타령은 곧 人生無常을 뜻한 것.



고 '84년에 정들었던 그곳 사교계를 떠나 귀국하였다. 귀국에 앞서 그는 과학논문 "On the Causes and Cure of Smoking Chimneys"를 발표했다. 그의 후계자로 駐佛公使로 임명된 Thomas Jefferson이 Franklin을 "replace"하게 된 것을 축하받자 그는 "No one can replace him, Sir, I am only his successor."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사실상 Franklin의 외교의 기량과 업적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었다. 귀국 후에 Franklin은 Pennsylvania州知事に 임명되어 연임하였고(1785~87), 그 후로는 大陸會議에 州대표로 참석하면서 회의진행의 조정역할을 했다. 그의 夫人은 그가 귀국하기 10년 전에 이미 죽었고 미국내의 그의 옛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그는 노후에도 "a man of perennially youthful spirit"였으며 귀국후의 6년간의 여생도 사교와 공익사업과 知的인 활동으로 충만해 있었다. 1787년엔 노예제도 반대협회(Anti-slavery Association)의 회장이 되어 활약한 것은 인도주의를 위한 그의 마지막 봉사였다. 1790년 4월에 그가 문헌 Philadelphia의 무덤의 묘비에는 그가 유언한 대로 "Benjamin Franklin, Printer"라고만 새겨져 있다.

18세기 미국문학의 *The Spectator*의 문체를 모방한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의 표본이라고 일러지는 그의 *Autobiography*에서 아쉬운 것은 그것이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의 경력중, 51세까지만 기록하여 외교관으로서의 활약기와 그의 말년이 빠져있다. 1771년 그가 65세 때,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여가를 이용하여 그의 회상기(memoirs)로 쓰기 시작한 이 자서전은 New Jersey 州知事인 아들 William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했다. 무엇보다도 有用性을 중요시한 그는 이 글 역시 자신의 과거의 회상의 즐거움외에 자손들은 물론 후대의 일반독자들에게도 아래의 인용에서 明記된 것처럼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을 실현한 그의 立志傳을 읽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이며 사실상 그의 豫見은 들어 맞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성과를 내게 된 것이다.

Dear son,

I have had a pleasure in obtaining any little anecdotes of my ancestors... Imagining it may be equally agreeable to you to know the circumstances of *my* life..., I sit down to write them for you. ...Having emerged from the poverty and obscurity in which I was born and bred to a state of affluence and some degree of reputation in the world, and having gone so far through life with a considerable share of felicity, the conducting means I made use of, which with the blessing of God so well succeeded, my posterity may like to know, as they may find some of them suitable to their own situations, and therefore fit to be imitated."

전체 4부로 된 이 전기의 제 1부는 그가 태어나서부터 24세인 1730년까지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私的이고 逸話들도 흥미를 끈다. 그러나 政務에 쫓겨 질필을 중단했다가 1784년, 78세때 프랑스에서 제 2부 집필을 시작했는데 이때 이미 78세였고, 혁명 때 그의 아들은 영국측을 지지했기 때문에 부자간 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또 친구들의 권고에 못이겨 이번엔 偉人傳을 의식하고 續稿한 탓인지 너무 교훈적(didactic)이 되었으나 자신의 도덕적 완성을 기하기 위한 과학자적인 노력을 시도한 흥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 귀국 직후 1788년에 Philadelphia에서 다시 시작한 제 3부는 83세의 고령에 쓴 것이지만 이 부분이 이 책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서 그는 그의 사업경력에 이어 정치와 공익사업에 투신하여 지도자 역할을 한 내력과 그에게 "philosopher"의 명칭을 안겨 주게 될 과학적 실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회고록은 실질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결국 1757년 그



의 51세때까지의 자서전이 되어버렸다. 1789년에 다시 제 4 부를 시작하여 '90년에 그가 생을 마치기 전까지 노쇠와 병고를 무릅쓰고 쓴 것은 단편적인 추가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전기로서는 미완성이지만 이 책은 성실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 한 인간이 살아간 방식과 의견을 충분히 전해주고 있다. 거기엔 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얻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수양과 덕성에 의한 성장을 원했고 독실한 기독교신자가되는 것보다는 유능하고 쓸모있는 시민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한 인간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그는 한동안 Walden Pond 湖畔의 숲속에서 실험적인 생활을 한 후대의 Thoreau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하나의 실험으로 보았다. 자신의 德性을 닦기 위해 13가지 덕목(Virtues) 즉, 節制(Temperance), 寡黙(Silence), 秩序(Order), 決意(Resolution), 節約(Frugality), 勤勉(Industry), 誠實(Sincerity), 正義(Justice), 寬容(Tolerance), 淨潔(Cleanliness), 平穩(Tranquility), 貞潔(Chastity), 謙遜(Humility) 등을 내걸고 실천하는 인생의 실험을 하되,<sup>7)</sup> 그 실험의 목적, 준비, 과정, 결과 등을 도표로 가지고 일일이 체크해나가는 과학자적인 면밀성을 보여주었다. 이 에피소드는 이 책의 highlight로서 이것이 바로 realism이며 이 점에서 *The Autobiography*는 미국문학에 realism의 전통을 심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Robert Spiller는 그의 *The Cycle of the American Literature*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Franklin...takes his place with Edwards as one of the first really great writers of the new literature. His progeny will be found among the realists and doers like Cooper and Mark Twain, Howells and Dreiser, and all the thousands of lesser men who have told a living story of the American experience.

한 마디로 이 책은 맨손으로 시작하여 부자가 되고 큰 업적을 쌓은 一代記인 동시에 善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寓話이기도 하다. 그는 독자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때로는 自嘲하는 듯한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매끈하고 명석하고 짤막짤막한 문장은 은연중에 독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그는 독자의 마음에 들고 그들의 생각을 유도하도록 의도적으로 썼다. "In matters of general concern to the people...it is of use to consider, as well what they will be apt to think and say, as what they ought to think."라고 한 그는 대부분은 친구를 대하듯 스스럼 없이, 그러나 때로는 공식적인 중후한 표현도 할 줄 아는 유연성있는 Franklin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군자는 아니었고 오히려 文章家였다. 자유분방한 기질도 있었으나 애써 이를 극복하려고 한 청교도적인 자기수련, 그리고 公益과 國益을 위한 깊은 사려와 헌신적인 노력의 배후에 그의 高邁한 精神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보통사람(the common man)에 관심이 있었고 신세계를 보통사람들이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그의 자서전의 行間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幽玄하고 신비한 것을 不信하고 감각에 비치는 대로의 세상의 현실에 대한 그의 믿음은 理性時代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I grew convinced that *truth, sincerity and integrity* in dealings between man and man were of the utmost importance to the felicity of life; and I formed written resolutions (which still remain in my journal book), to practice them while I lived. Revelation had indeed no weight with me as such.

7) Franklin의 분석적·실천적인 자기 반성법을 曾子의 종합적·관념적인 그것과 비교하면 흥미 있다. 그 내용 역시 그러하다. 曾子曰吾日三省。

D. H. Lawrence는 그의 *The Autobiography* 論에서 인간의 本性으로 보아 가능할 법도 하지 않는 도덕적 완성을 Franklin이 시도한 데 대해서 공격했고 13가지 덕목 중 특히 Chastity: Rarely use venery but for health or offspring.”의 항목을 Lawrence답게 매도하였다. 근본적으로 그는 Franklin의 理神論, 실용성 (practicality), 공리성 (utility)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며 따라서 Franklin 개인보다도 계몽주의·합리주의 자체를 공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ionysus가 Apollo를 배척한 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Franklin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과학을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to extend the power of man over matter, avert or diminish the evils he is subject to, or augment the number of his enjoyment”라고 한 말에서도 보다시피, 인류전체의 계몽과 행복의 증진에 있었다.

그러므로 Thomas Carlyle이 그를 가리켜 “the Fathers of all the Yankees”라고 부른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과연 그는 “Yankee”가 신봉하는 價値들——근면, 신중, 상식, 검소, 야망, 실용적인 도덕, 세속적인 성공, 인도적인 봉사 등——이 실용주의 (pragmatism) 정신과 함께 그의 몸에 배어있는, 미국의 신화를 낳은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Franklin처럼 자서전을 써서 그의 시대의 전형적인 미국인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한 지각있는 移民의 참신한 눈으로 본 전형적인 미국인의 모습을 기술한 것이 Hector John de Crèvecoeur의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이다. 이것은 표제대로 편지 형식이어서 자서전에 비해 더 객관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 Franklin처럼 한 도시인의 自畫像이 아니라 한 농부의 초상인 것도 18세기의 미국인을 보는 視角을 넓게 해 준다. 물론 이 책은 미국인의 특성 외의 것에 대한 기술도 많지만 그것 역시 배경지식으로 매우 중요하다.

Crèvecoeur는 1735년 프랑스 Normandy의 Caen의 小貴族 출신으로, Jesuit교도인 독선생과 그 당시의 Collège du Mont에서 교육받다가 16세 때 영국에 건너가 Salisbury에 사는 친척 집에서 영어를 습득했다. 1755년에 佛領 Canada에 건너가 French and Indian War<sup>8)</sup> 말기에 프랑스軍에 근무하였으며 從軍기간에 그는 지도제작의 임무를 띠고 五大湖 (the Great Lakes) 와 Ohio江 유역을 답사했다. 그는 中尉가 되었으나 Quebec이 英國軍에 함락되고 Canada가 英國領으로 넘어간 후 식민지 미국의 북부에 들어와 姓字 “Jean”을 “John”으로 바꾸고 약 10년간 Pennsylvania, New York州 등 the Middle Colonies를 측량사 혹은 세일즈맨으로서 두루 편력하다가 1764년에 New York州에서 歸化하였다. (당시의 旅程을 기록한 *Journey into Northern Pennsylvania and the State of New York* 3권을 佛語로 쓴 것이 뒤늦게 1801년에 Paris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同州의 “the edge of the great wilderness, three hundred miles from the sea”에 있는 Orange County에 “Pine Hill” 농장을 사서 정착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the situation, feelings, and pleasures of an American farmer”를 가졌고 “distresses of a frontier-man”도 가졌다. 1969년에 개신교 목사의 주례로 미국여자와 결혼하였다. 이리하여 프랑스의 귀족 카톨릭 가문에 태어난 Crèvecoeur는 그의 가문과 종교와 국적과 姓字까지 차례로 버리고 30代 중반에 미국인 농부로서 한 곳에 安住하여 牧歌의인 생활

8) 英佛間의 七年戰爭 (Seven Years' War)의 연장으로 신대륙에서의 서부지역과 Canada의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1754~1763). 佛軍에 인디언인 병사를 합세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

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즈음엔 이미 식민지인들 사이에는 자기네 대표의 참여도 없이 英本國의회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課稅한데 대한 반발이 심했고 기타 경제·정치문제에서 英本國과의 異見이 속출하여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져서 그가 의도했던바 牧歌의인 농경생활로 일생을 보내려던 계획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았다. 그는 식민지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중도파로 보이는 Franklin에 동조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영국의 王黨派편을 들었다.

그때문에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애국적인 이웃사람들에 의해 농장에서 쫓겨나게 되어 부인과 두 자녀를 남겨두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New York市로 가서 영국군의 보호를 청했다. 그러나 영국군은 그를 George Washington과 내통한 자로 의심하고 투옥시켰다가 1780년에야 그가 영국을 거쳐 프랑스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그는 30년만에 모국 프랑스로 돌아왔다. 실로 파란폭절과 모험으로 가득찬 30년이였다. 그가 귀국길에 London의 출판사에 맡겼던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가 1782년에 출판되었고, 1783년엔 그 내용을 늘이고 보다 더 감상적인 필치로 佛譯한 것을 Paris에서 출판했다. 당시엔 서한체의 글과 日誌(journal)가 크게 유행했었는데다가 이 책은 그 話題가 특수했으므로 英佛양국 뿐만 아니라 愛蘭語, 和蘭語, 독일어 등으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에서 대인기였고 Crèvecoeur는 한동안 Paris에서 그 文名을 날렸다. 그러던 중 프랑스에서 그는 Franklin과 프랑스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New York州, New Jersey州, Connecticut州의 프랑스領事職으로 임명되어 1783년에 독립을 달성한 미국에 돌아왔다. 그 동안 그의 부인은 죽었고 농장의 집도 인디언의 습격으로 파괴되었으며 남겨두고 떠났던 자녀들은 다행히 Boston의 어떤 가족이 돌봐 주고 있어서 재결합할 수 있었다. 그는 New York에서 프랑스 領事로 재임중 美佛兩國의 우호증진을 위해 노력하다가 1790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하고 故國의 Normandy로 돌아가서 23년의 여생을 보냈다. 그의 초기의 편지들 중에서 출판이 금지되었던 것들을 포함한 유고들이 1925년에 *Sketches of Eighteenth Century America*로 출판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료나 主題에 있어 그의 主著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를 거의 되풀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Letters*는 한 마디로 미국농민의 생활을 유럽의 농민과 근로자의 생활과 비교대조하면서 유럽이 폐쇄된, 퇴폐적인 귀족사회인데 반하여 미국은 개방된, 성장하는 민주사회임을 보여 주었다.

There is not among them an esquire, saving the unlettered magistrate. There he sees a parson as simple as his flock, a farmer who does not riot on the labor of others. We have no princes, for whom we toil, starve, and bleed: we are the most perfect society now existing in the world.

Crèvecoeur는 대부분 서술체로 미국의 농촌사회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의 persona와 상황과 사건들의 기술은 거의 소설같이 각색하고 있다. 그 예로 그 자신 미국에 태어나 교육도 별로 받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멀리 여행한 적도 없고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농장 안에 살면서 이 세상과 다른 세상들에 관한 지식을 얻었고 인생의 의미도 깨달은 것처럼 꾸며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Hector St. John이란 이름의 한 미국인 농부가 미국생활에 대해 묻는 영국인에게 보내는 길고 짧은 12통의 편지를 모은 형식으로 되어있는 이 책은 속표지에는 그 제목도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 describing certain provincial situations, manners, and customs, not generally known, and conveying some idea of the late and present interior circumstances of the British Colonies in North America: written for the information of a friend in England, by J. Hector St. John, a farmer in Pennsylvania*로 되어 있듯이 미국의 식민지의 이모저모를 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식민지를 셋으로 구분하여 북쪽의 Nantucket, Martha's Vineyard, Cape Cod 식민지에 대해서 5통, 그가 행복한 7년을 보낸 농장이 있는 중부 식민지 Pennsylvania에 관해서 2통, 남부식민지 South Carolina의 Charleston과 그 지역의 비극적인 노예제도에 관한 것이 1통이고, 나머지 4통은 잡다한 화제, 이를테면 미국의 천재적인 식물학자 John Bartram, 그 자신의 박물학 연구 그리고 제 3장에서 "What is an America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종족의 문제——미국인의 특성과 미국사회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話者는 자기가 "neither philosopher, politician, divine, nor naturalist, but a simple farmer" 라고 소개하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였다. 농사와 재산 모으는 것밖에 모르는 그의 아내는 그의 집필계획을 한사코 반대했다. 돈벌이와 무관한 글쓰기로 시간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며 당신의 부친이 당신처럼 글쓰는데 한눈을 팔았다면 이 농장을 이룩할 수 있었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관찰과 사고를 기록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는데가 Yale대학 출신의 목사의 격려도 있고 해서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12장에서 話者는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어느 쪽에 충성을 해야 할지 몰라 딜레마에 빠진다. 차라리 인디언부락에 가서 살려고 결심한다. 그러나 그의 자녀가 인디언과 결혼할 가능성과 농경 대신에 사냥을 해야할 것을 생각하고는 몹서리친다. 그는 또 미국의 自然을 Captain John Smith와 William Byrd처럼 驚異에 차서 설명했고 鳥類, 곤충, 動植物에 관한 흥미로운 지식을 전하면서 새의 노래 소리와 꿀벌과 뱀까지 찬탄하듯 묘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 땅은 유럽의 근면한 빈민들에게 유례없는 "the land of opportunity"이며 미국의 농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강조했다. 그가 理想으로 여기는 미국인은 자기 땅을 경작하여 생계를 세우고, 서로 동등한 이웃사람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인정많은 농부였다. 그는 農耕은 경제적 번영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인간 고래의 소박한 위엄성과 정의의 길을 유지하는 길이라면서 농경의 행복(agrarian happiness)을 謳歌하였다.

Here we have in some measure regained the ancient dignity of our species; our laws are simple and just. We are a race of cultivators, our cultivation is unrestrained, and therefore everything is prosperous and flourishing... Happy man, thou hast nothing to demand of propitious heaven but a long life to enable thee to finish the most material part of thy labours, in order to leave each of thy children an improved inheritance. Thank God and thy fate, thy wife can weave. This happy talent constitutes the most useful part of her portion. Then all is with thee as well as it can be.

Crèvecoeur는 또한 환경주의자 (environist)로서 미국인이 지역에 따라 농부, 나무꾼, 해안거주자, 植民者, Quaker교도 등, 서로 직종이 나뉘고 게다가 직종에 따라 사람의 성격차도 생기게 되는 까닭을 모두 환경 탓으로 돌렸다.

Men are like plants; the goodness and flavor of the fruit proceeds from the peculiar soil and exposition in which they grow. We are nothing but what we derive from the air we breathe, the climate we inhabit, the government we obey, the system of religion we profess, and the nature of our employment.

그에 의하면 우리의 의견이나 좋고 나쁜 습성까지도 전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며 예컨대 해변의 주민은 떠들썩한 요소에 자주 부딪치기 때문에 자연히 대담하고 장사속이 있고 나무꾼과 변경거주자는 언제나 들짐승 혹은 敵을 경계, 대결, 추격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연히 용맹스러워지지만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이다. 이들과는 달리 중간지대의 거주자들은 그 인구도 훨씬 많고 대부분 농경에 종사하므로 소박한 농촌생활이 그들의 마음을 淨化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감에 따라 미국인의 성격에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농부의 성격이 가장 원만하고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Crèvecoeur는 東에서 西로, 즉 초기식민지에서 서부개척지로 뿐만 아니라 北에서 南으로, 즉 New England 해안의 어업 및 농업지대로부터 中部(the Middle States)의 더 비옥하고 온화한 自作農地를 거쳐 南部의 노예 사역 농원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으로 관찰한 결과 中部의 생활이 최고임을 발견한다. 北部의 생활은 자원이 너무 적어서 고생스럽고 南部는 너무 태만해지고 퇴폐적이라는 것이다. 北部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사람들이 강건하고 자립정신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南部에서는 “Mankind reap too much, do not toil enough, and are liable to enjoy too fast the benefits of life.” 인테다가 과잉생산의 땅과 온화한 기후까지 겹쳐져 노예제도라는 도덕적 타락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제 3장 “What is an American?”에서 Crèvecoeur는 미국인 전체의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했는데, 유럽에서 건너온 잡다한 민족이 이 新大陸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혼합되어 인류사상 새로운 인간형을 형성했으며 그들은 새로운 원칙, 새로운 사상으로 행동하며 유럽에서처럼 마지못해 풍돈을 벌기 위해 별로 보람도 없는 소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수확이 보장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을 한다고 했다. 식민지 사람들은 “a mixture of English, Scotch, Irish, French, Dutch, Germans, and Swedes”이며, “from this promiscuous breed that race now called Americans have arisen.”이라고 하여 미국이 이를테면 인종의 “melting pot” 또는 “salad”를 이룬, 세계사에 새로운 국민임을 힘주어 말했다.

What then is this American, this new man? He is either an European, or the descendant of an European, hence that strange mixture of blood, which you will find in no other country...He is an American, who, leaving behind him all his ancient prejudices and manners, receives new ones from the new mode of life he has embraced, the new government he obeys, and the new rank he holds. He becomes an American by being received into the broad lap of our great *Alma Mater*. Here individuals of all nations are melted into a new race of men, whose labours and posterity will one day cause great changes in the world...The American is a new man, who acts upon new principles; he must therefore entertain new ideas, and form new opinions. From involuntary idleness, servile dependence, penury, and useless labour, he has passed to toils of a very different nature, rewarded by ample subsistence. This is an American.

또한 농부들은 이 脫유럽의 新天地의 광활한 땅에 흠어져 살면서 계급차도 없고 빈부의

차도 적으며 권력의 횡포도 없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民主主義 평등사회를 이룩해 놓았다.

Here are no aristocratical families, no courts, no kings, no bishops, no ecclesiastical dominion, ... The rich and the poor are not so far removed from each other as they are in Europe. Some few towns excepted, we are all tillers of the earth, ... We are a people of cultivators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by means of good roads and navigable rivers, united by the silken bands of mild government, all respecting the laws, without dreading their power, because they are equitable.

Crèvecoeur는 이렇듯 미국의 농촌사회를 미국인의 꿈이 실현된 사회로 그리고 있지만 이것은 다만 미국의 농부가 유럽의 농부나 근로자에 비해 월등하게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는 인간이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고는 믿지 않았으며 인간의 불완전성과 고난과 불공평에 대해서 창조자의 지혜에 회의를 느끼고,

“Gracious God? To what end is the introduction of so many beings into a mode of existence in which many must grope amidst as many errors, commit as many crimes, and meet with as many diseases, wants, and sufferings!”

라고 개탄한 비관론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그러한 어두운 인간조건은 舊世界 특히 영국에나 있고 이 식민지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

He [Englishman] must greatly rejoice that he lived at a time to see this fair country discovered and settled; he must necessarily feel a share of national pride, when he views the chain of settlements which embellishes these extended shores. When he says to himself, this is the work of my countrymen, who, when convulsed by fractions, afflicted by a variety of miseries and wants, restless and impatient, took refuge here.

그는 또 농민 뿐만 아니라 무릇 미국인이 다재다능하며 정력이 넘치고 부지런해서 위대한 과업을 성취할 것을 예언했다.

“Americans are the western pilgrims, who are carrying along with them that great mass of arts, science, vigor, and industry which began long since in the east; they will finish the great circle.”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理想主義와 感傷主義와 아울러 도처에서 눈길을 끄는 原始主義(primitivism), 자연숭배, 인도주의, 민주주의, 고딕주의 등의 낭만주의 요소들로 해서 그는 Rousseau의 낭만가(romancer)라고 評할 만도 하다. 그가 미국을 “the asylum of freedom, as the cradle of future nations, and the refuge of distressed Europeans”라고 理想化했고<sup>9)</sup> 그의 문장 역시 18세기 Neo-Classicism의 節度가 있는 가운데에도 Franklin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것같은 풍자나 機智 대신에 낭만적인 유창성 내지 과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는 미국문학에서 새로운 낭만주의(Romanticism)의 경

9)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1607-1783*에서 Moses Coit Tyler는 “He [Crèvecoeur] celebrates the comfort of American life—its opportunity—its thoughtfulness —its dignity—its beneficence.”라고 평하여 그의 길은 낭만적 색채를 강조하였다.

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전술한 바 Franklin의 *Autobiography*에서 드러난 사실주의(Realism)의 새로운 경향과 대조적임을 볼 때 우리는 그 兩大潮流의 원천이 18세기의 이 두 古典 작품 속에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Franklin이 그런 도시인으로서의 미국인과 Crèvecoeur가 관찰한 농부로서의 미국인은 一見 “practical”한 특성과 “romantic”(Lawrence의 용어에 의하면 “emotional”)한 특성에서 서로 대조적일지 모른다. 후자의 그런 성향은 *Letters*에서 話者が 그의 외딴 농장에서 손을 뻗고서 “secret communion among good men throughout the world”를 나눈다고 한다든가 “envy no man’s prosperity, and wish no other portion of happiness than that I may live to teach the same philosophy to my children”같은 말에서도 웅변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그들 兩者는 공통점이 더 많다. “practical”한 사람도 Franklin처럼 원대한 「미국인의 꿈」을 쫓고 연을 띄워 번개를 실험하고 “Wonders of Nature in America”를 비롯한, 그 대부분이 “hoax,” “fable,” “tall tale”로 된 bagatelles를 쓰는 정신은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고, “romantic”한 사람도 *Letters*에서 보여주듯 “Good and evil I see is to be found in all societies, and it is in vain to seek for any spot where those ingredients are not mixed.”라고 전제하고 그렇듯 불완전한 사람이 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이 비교적 행복을 누리고 사회가 비교적 쾌활하게 존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성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인간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살리고 가장 해를 끼치고 불쾌한 것은 억압하는 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私利私慾은 인간의 본능인 만큼 자신의 노력에 의해 물질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천연자연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인간 상호간의 침해와 마찰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정력을 보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쓰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와 기독교윤리가 필요하다고 한 그의 주장은 매우 “realistic”하며 또 “For my part, I had rather admire the ample barn of one of our opulent farmers, who himself felled the first tree in his plantation, and was first founder of his settlement, than study the dimensions of the temple of Ceres. I had rather record the progressive steps of this industrious farmer, throughout all the stages of his labors and other operations, than examine how modern Italian convents can be supported without doing anything but singing and praying.”라고 말한 것을 보면 Benjamin의 “practicality”와 合理主義가 무색할 지경이다. 兩者는 또한 그들의 인도주의정신에 있어서도 공통적이다. Franklin은 그의 에세이 “Remarks Concerning the Savages of North America”(1784)에서 유럽인에 비해 인디언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인정이 있고 생존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유럽인은 자기네 성격과 습관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뿐, 그들의 많은 행동에 있어서 인디언보다 사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말년에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Crèvecoeur도 *Letters*에서 南部白人이 흑인노예를 학대한 실례를 매우 회화적으로 묘사하여 이를 고발하고 있다. 백인을 죽인 흑인 노예를 우리에게 가두어 그 우리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흑인이 猛禽들의 밥이 되게 하는 私刑을 가했다는 에피소드를 쓰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례보다도 더 크게 인도주의에 위배되는 전쟁을 증오했다. 그가 Quaker교도의 중심지인 Pennsylvania州를 永住地로 택한 것은 그가전쟁을 기피하는 Quaker교를 신봉했었기 때문이었다는 설도 있다.